

### 공동체 소식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하느님, 성가정을 통하여 참된 삶의 모범을 보여 주시니, 저희가 성가정의 성덕과 사랑을 본받아, 하느님의 집에서 끝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 12월 기도지향

- + 정준구 파비아노, 박혜정 카타리나 가정
- + 이우영 가브리엘, 김수연 올리안나 가정

☞ 1월 기도지향은 캔사스 한인 가톨릭 공동체입니다.

■ ‘성탄대축일 전례 및 행사’에 봉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 다음 주일은 ‘1월의 첫주일’로서 ‘자비의 특별 희년 기도’가 있는 날입니다.  
- 일시 : 1/3 (주일) 3:00 - P.M.

■ 송년미사  
- 일시: 12/31 (목) 오전10:00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 일시: 01/01/2016 (금) 오전11:00.  
- 내용: 이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며, 신앙인들이 꼭 미사 참례해야 하는 의무 축일입니다.

■ 복사단 겨울 행사  
- 일시: 1/3 (주일) 교중미사 후.

■ 전입 오신 분  
- 전입자: 최영길, 윤승희 수산나 가정  
- 연락처: 913)217-7240  
- 주소: 19343 Ash St., Overland Park.

■ 1월 예수성심 및 성모신심미사는 없습니다.  
■ 총구역회 모임 및 1월 구역모임은 없습니다.  
■ 본당간판 단장작업에 Holy Trinity Parish 신부님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 성가곡 조정 안내(대림시기부터)  
- 자비송 : 325번,  
- 대영광송 : 326번,  
- 거룩하시도다 : 327번,  
- 신앙의 신비여 : 373번  
(1절-연중, 2절-대림·사순, 3절-성탄, 부활),  
- 아멘 : 378번,  
- 주님의 기도 : 387번,  
- 주님께 나라와 권능 : 389번,  
- 하느님의 어린양 : 328번.

#### 전례 성가

시 작	예 들	성 체	마 침
113	219	178	113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정예찬 미카엘	안광민 야고보
	김정원 안젤라	김준영 요셉
다음주일	이원준 요한	안광민 야고보
	정채린 소피아	문호진 안토니오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 세실리아	김아람 크리스티나	선하서 미카엘라
차주	김명은 안젤라	차호섭 요셉	최선윤 마리아

#### 애찬 봉사자

금주	박정자, 김경돌, 한순례, 정지현
1/1	김시연, 신혜경, 김말자, 문문주, 최은미, 박옥희
차주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문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20	80명	419불	1,260불
12/24	75명	223불	구유예물
12/25	105명	404불	631불
이우석, 김대연, 김정원, 한봉경, 감영진, 김호원, 정지현. (총 7세대) 성탄행사 특별헌금 100불.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2코린 4,18-

2015년 12월 27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회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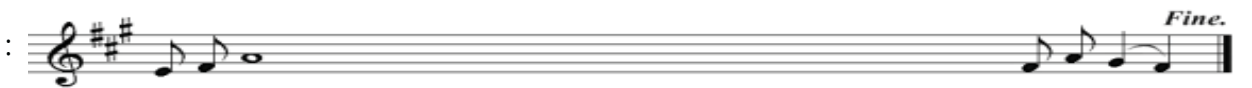
성탄 후 첫 주일인 오늘은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 가정 성화 주간도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나자렛의 성가정을 본받아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요 학교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상처 입은 가정들과 외딴 교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 그림 묵상

성가정

마리아와 요셉은 어린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따르며 지내신 성스러운 가정이었습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바라고, 믿고, 견뎌 내서 거룩한 성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표정이 세상 위에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아파하고 고민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3,2-6.12-14<또는 1사무 1,20-22.24-28>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화답송 :  Fine.  
행복 하 여라, 주님을 경외 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여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3,12-21<또는 1요한 3,1-2.21-24>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생활>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1-52  
<부모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다.>



### 거룩한 성가정을 본받자



성가정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이루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을 성가정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가정의 중심에 계시기 때문인데, 이 말은 하느님께서 가정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가정은 사랑으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꼭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각 구성원들은 이상적인 아버지, 어머니,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모든 가정의 모범이 됩니다.

먼저, 요셉 성인은 아버지의 모범입니다. 성인은 참으로 현명한 분이요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성인은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를 배려하여 그 사실을 남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고자 하십니다. 이런 성인은 참으로 의로운 분이기에 하느님의 뜻에 마음을 열 줄 아는 분이셨습니다. 성인은 꿈에서 본 천사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친자식은 아니지만, 하느님 뜻에 따라 예수님을 기꺼이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정성껏 기릅니다. 요셉 성인은 아이와 그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모두 내던져 이집트까지 내려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은 하느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수행해내는 책임감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성모님은 어머니들의 모범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침묵 가운데 묵묵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리라는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또한 성모님은 평생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 두시며, 하느님께 의탁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보면 성모님은 성경이 말하는 참으로 의로운 분이십니다.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기에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복음은 이런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며 살았다고 전해 줍니다. 비록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살았고, 또 자녀로서의 해야 할 도리를 하면서 사셨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자녀들의 모범이 됩니다.

이처럼 성가정은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주어진 역할들을 충실히 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가득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찾는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마지막까지 책임지며 보살피 주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달리 살았다고 한다면 성가정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네 가정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장 기쁘게 만드는 것도 가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도 가정입니다. 결국, 세상의 행복은 가정의 행복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가족을 버리는 세상이 되어 버린 듯합니다. 성가정 축일을 맞아 다시 한 번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을 중심으로 하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 청합시다. 이 세상에 서로를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의롭고 아름다운 가정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성가정 축일을 맞이하여 우리들 가정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 엄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 거인 골리앗을 이긴 소년 다윗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이 다윗을 아시죠? 그가 소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 이스라엘의 사울 임금이 군대와 함께 그들에 맞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산마루에 모여 있었고 맞은편에 모여 있는 필리스티아 병사들은 날카로운 철로 만든 창들로 무장하여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 병사들 중 거인 투사 한 명이 나섭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무엇이냐 말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17,1-11

골리앗이 소리를 쳐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반응이 없자, 그는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다시 나타난 그는 더욱더 교만해져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돌아갔고, 이런 일이 사십여 일이나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간 소년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른 병사들과 대화를 하고있던 다윗의 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며 뭐라고 말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17,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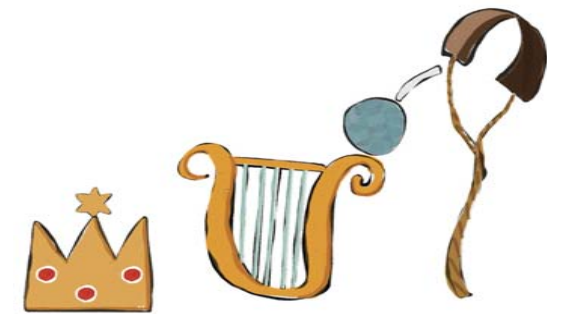
다윗이 한 말이 사울 임금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어린 다윗을 말립니다. 다윗이 계속 청하자 사울은 허락을 하고,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지만, 다윗은 무겁다며 갑옷을 벗어 버리고 골리앗과 일전을 벌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1사무 17,30-58

소년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칼집에서 칼을 뽑아 그를 죽였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은 골리앗이 죽은 것을 보고 모두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영웅으로 선언했고 모든 백성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룹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왕국으로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총 40년 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느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지켰고, 종교적으로 나라를 단합시켰으며, 그의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골리앗은 방심하여 소년 다윗을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한 다윗의 믿음과 더불어 하느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 물음표와 느낌표

- 사랑도
- 가정도
- 신앙도
- 모두 모두
-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어가는 방법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루카 2,51)

- 임의준 신부(서울대학교 직장사목부 담당)